일본의 구와무라 섬유 - 소로트、단납기에 대응하고자 특수 와인더 도입

일본의 선염 산지에 있는 구와무라 섬유(桑村纖維)는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다품종 소로트화, 단납기화를 실천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어레인지 와인더(arrange winder) 6대를 도입하였다.

어레인지 와인더는 섬유 기계 상사인 가다야마 상점(片山商店), 무라다 기계(村田機械), 교토 공예섬유대학, 효고 현립공업기술센터, 섬유공업기술 지원센터 등의 산、학、관의 제휴 하에 개발한 기계로 경제 산업성의 제1회 신상품 개발 대상으로 내각총리대신상을 받았다. 여러 가지 색의 실을 한 올의 실로 감을 수도 있으며, 다품종 소로트화나 단납기화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원사 개발에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구와무라 섬유에서는 이미 한 올의 실을 풀 먹이는 장치나 정경기를 활용하여 소로트、단납기 생산의 네크(neck)가 되었던 직포 준비 공정을 합리화하였다. 동시에 이 산지에서는 어렵다고 하던 마 100% 소재나 고밀도 박지 직물의 가호도 가능하게 하였고, 소재를 다양화함으로써 상품 개발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외부 스태프를 활용하거나 기획 회사와의 컬래버레이션 등으로 패션 정보의 수집, 기획력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

이번에 어레인지 와인더를 도입함으로써 소로트화、단납기화로 코스트를 억제하면서 처리하는 체제를 갖추면서 고부가가치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